



## 생태적 회개 - 마음을 바꾸는 경험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초대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 시작되면서 “생태적 회개”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1년 1월 17일 일반 알현 때 하신 교리 교육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인간의 주권이 “하느님의 유일한 무한한 주권의 참된 반영”이므로 인간은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서 나누어 받은 지혜와 사랑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생명의 복음』, 52항) 하지만, 오히려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하느님을 실망시켜드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회개를 통해 인간이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생태적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는 흔히 태양광 발전이나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기술이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물론 의미 있지만, 그 이전에 인간과 자연세계 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연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는 내적 회개의 체험이 우선해야 합니다.

2002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동방 정교회의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와 함께 “환경 윤리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서로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려는 새로운 노력과 참회 행위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인 것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이고 철저한 내적 회개를 통하여 생활 방식을 바꾸고, 환경을 고갈시키는 소비와 생산 방식을 고칠 때에만 경제적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지 친환경 기술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므로, 기술 발전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재사용, 재활용하는 기술이 있더라도 쓰레기의 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사용, 재활용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듯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첫 열쇠는 쓰레기의 발생을 처음부터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생활 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연을 고려하는 영성적 가치, 곧 절제와 같은 덕을 우리 안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호주 주교님들의 성명을 인용하며 말씀하셨듯이, 생태적 회개는 우리가 피조물의 세계에 끼친 해악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18항 참조).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루카 6,45)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자라고 그들을 고려하는 삶의 가치를 세워나간다면,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도 생태적 회개의 신앙생활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끈벱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